

# 빛으로 채운 사랑

오늘 하루는 어린시절의 애뜻한 기억들이  
되살아나는 시간이었습니다.

잊혀져가는 감성과 지난 추억들이  
환편의 시가 되어 내 머리속을 스쳐지나 갈 때에.

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 
그리고 빛에 대해서

다시금,  
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.

아이가 성장해 지금 이 시간들을 돌아 볼 때에는  
시간속에서 말하고자 했던 사랑과 빛에 대한 생각들을  
말걸해 갔으면 좋겠습니다.  
저 멀리, 꿈을 꾸고 있는 작은 소녀  
어어쁜 예진에게.

## 장영민

원문사진예술전문학교 초상사진과 졸업, 도쿄디자인전문학교 비주얼디자인과 졸업  
블로그 <http://blog.naver.com/sg00350>

